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년 10월 2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이상훈 과장(044-203-5360), 권덕중 서기관(5361)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비즈니스 서포터(BS)가 나서서 속도 낸다

-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 개최 -

□ 산업부가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를 열었다.

○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는 9. 23.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후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에너지 신산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부와 민간 전문가와 참여하는 협의체다.

○ 10. 1. (수) 열린 1차 회의에는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인 김희집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 등 법률, 금융 전문가와 문재도 산업부 차관,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 제1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4. 10. 1.(수) 07:30~09:00 / 프레스센터 (서울)

◇ 참석: (공동위원장) 김희집 서울대 교수, 문재도 산업부 2차관
(위원)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서포터(6), 법률·금융·에너지신산업 및 기술 전문가(7), 산업부,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등

◇ 논의주제: 에너지신산업 추진현황 및 규제완화, 요금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첫 회의에서 '전력 수요관리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분야의 시장현황 점검과 규제개선 등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 아울러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수요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11월 하순에 성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장운영자, 수요관리 사업자, 관련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 협의회 구성과 개최 배경 >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기존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이 미래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작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13. 8.), 전기요금 체계개편('13. 11.)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 올해 1월부터는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응 테스크포스(TF)」와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 에너지신기술에 시장형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 신산업 후보군을 발굴하고,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7. 17.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를 방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9. 4. 대통령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는

-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성공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 박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시장으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에너지신산업 창출 전략을 직접 제안.

○ 또한, 시장진입, 가격, 영업,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통로인 「에너지신산업협의회」를 구성했다.

< 에너지신산업협의회 구성과 역할 >

□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민·관이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 건의, 이행실적 점검·보완, 시장이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과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규제·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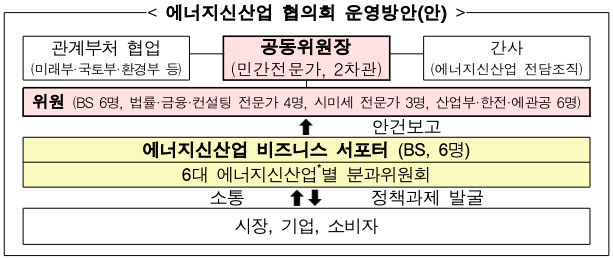
□ 협의회는 민간전문가와 산업부 2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신산업 분야별로 6명의 비즈니스 서포터(BS)를 지정했다.

○ 비즈니스 서포터는 에너지 신산업별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신산업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을 주기적으로 열고

- 산·학·연 의견을 수렴, 시장 모니터링, 애로요인 파악, 규제개선 등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더불어 정책과제를 차례대로 협의회에 상정해 다른 전문가와 논의하고 정책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①전력 수요관리, ②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③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④태양광 렌탈, ⑤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⑥화력발전 온배수열

< 제1차 협의회 주요내용 >

□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수요추종형, 공급중심 에너지정책과 시장규율 중심의 규제가 ‘혁신적 발상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고

○ 에너지 신산업 진흥과 관련된 제도는 연내에 규제방식을 제한적(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다만, 시장규율과 관련된 제도는 포괄적(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유연한 규제 적용

□ 또한, ‘전력 수요관리 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서포터(BS)의 시장현황과 건의사항 보고 토론을 했다.

* ㅣ전력 수요관리 사업」 비즈니스 서포터(BS): 김진호 가천대 교수
ㅣ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비즈니스 서포터(BS): 김지섭 LG CNS 상무

○ 「전력 수요관리 사업」 김진호 가천대 교수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규칙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시장여론 수렴결과를 반영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사업자별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요관리 능력과 미 이행 위약금 완화 등 초기 재무부담과 투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김지섭 LG CNS 상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의 제도화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상황에 따라 전력공급(분산전원 기능)과 전력소비(전력부하 역할)의 상반된 구실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 저장된 전력의 거래허용을 제안했다.

□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 11월 하순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전까지 비즈니스 서포터(BS)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 향후계획 >

□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1회씩 정례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차례로 점검하기로 했다.

○ 또한, 에너지신산업 발굴·육성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에너지신산업 전담조직을 산업부에 신설하고, 발표한 대책과 협의회에서 결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이번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주재한 김희집 공동위원장은, "에너지는 대표적인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 "정부 보조금 보다 민간금융으로 작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진정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민과 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 산업부 문재도 차관은 "비즈니스 서포터(BS)가 시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실시간으로 산업부와 협의해서, 시장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기반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1>.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개요
<참고자료2>.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구성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권덕중 서기관 (☎ 044-203-5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1차 민·관 합동「에너지신산업 협의회」개요

□ 개요

○ (일시/장소) 10.1(수) 07:30~09:00 / 프레스센터 (서울)

○ (참석) 공동위원장(김희집 교수, 2차관), 위원(BS 6명, 법률·금융·컨설팅 전문가 4명, 시·미·세 전문가 3명, 산업부·한전·에관공 5명), 간사

○ (논의주제) 에너지신산업 추진현황 및 규제완화, 요금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 세부 시간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07:30-07:40	10	(개회) 모두말씀 모두말씀	차관 민간위원장
07:40-07:45	5	(보고)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수요관리 정책과장
07:45~07:50	5	(보고) 규제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	전력진흥과
07:50-08:10	20	(보고) 「전력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분야 현황 및 개선과제	해당분야 BS 발표(각10분)
08:10-08:50	40	(토론) 「전력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활성화 방안	차관
08:50-09:00	10	(폐회) 토론결과 정리 마무리 말씀	민간위원장 차관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참고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속	직위
공동위원장		김희집	서울대	교수
		문재도	산업부	차관
비즈니스 서포터 (6)	전력 수요관리	김진호	가천대	교수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김지섭	LG CNS	상무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
	태양광렌탈	국자중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전기차	박경린	제주대	교수
	온배수열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문가 (4)	법률	이종영	중앙대 로스쿨	교수
	금융	이종욱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컨설팅	김성우	삼정 KPMG	전무
		송태인	Deloitte 안진	전무
시미세 (3)	시장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LS산전	협회장 부회장
	미래	안남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세계	정태용	KDI	교수
산업부·한전·에관공 (6)		박일준	산업부	국장
		채희봉	산업부	국장
		박기영	산업부	국장
		정용헌	산업부	에너지자문관
		김병숙	한국전력공사	본부장
		김태영	에너지관리공단	이사